

“경쟁 대신 풍경 감상하며 뛰었어요” 나주영산강 마라톤대회

9일간 나주 영산강둔치공원...500여명 출전
마스크 착용·발열 확인·1m 거리두기 출발

“가족들이 10km 구간 결승점을 동시에 통과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모두 완주한 것에 만족해요”

마라톤 참가자 스스로 코스를 결정하고 기록까지 측정하는 코로나19 맞춤형 ‘제7회 나주영산강 비대면 마라톤대회’가 30일 전남 나주 영산강둔치체육공원에서 막을 내렸다.

지난 22일 시작해 이날까지 9일동안 펼쳐진 대회는 500여명이 출전했으며 참가자들은 정해진 코스(영산강둔치체육공원-나주대교 아래-송촌보간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기록을 인증 받았다.

일부 참가자들은 나주지역의 명소를 중심으로 스스로 코스를 구성해 달

린 뒤 휴대전화 앱에 기록된 시간과 출발·도착 사진을 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 올리며 기록을 측정했다.

또 이번 대회는 기존 경기처럼 대규모 참가자가 출발 총성과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1m 간격 거리두기 방식으로 뛰며 기량을 점검했다.

다른 참가자들과의 치열한 순위 다툼 대신 자신의 기존 기록과 경쟁을 한 참가자들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완주 기념사진을 찍으며 대회를 마쳤다. 출전에 앞서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문진표 작성 등의 절차도 꼼꼼하게 수행했다.

대회 참가자에게는 나주배급과 생수, 음료, 메달, 배번호, 기록증 등이

제공됐다. 가족 참가자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가족 모두가 대회에 출전했다”며 “손을 잡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초등학생 막내까지 10km 완주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40대 참가자는 “모든 참가자가 기록을 다투며 레이스를 펼치지 못해 기존 내 기록과 차이는 있었지만 혼자 달리니까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또다른 마라톤 재미를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30대 여성 참가자는 “10km구간을 뛰고 걷고를 반복하며 처음 완주했다”며 “꾸준히 연습하면 다음 대회에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나주마라톤동호회가 주관했으며 전남도, 나주시, 광주시교육청 등이 후원했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19 맞춤형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나주마라톤동호회 주관 ‘제7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가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영산강둔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참가자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달리고 있다.

‘68전 69기’ 문경준, 6년만의 KPGA 감격 우승

KB금융 리브챔피언십 마지막날 역전 우승...“코로나 백신 맞은후 유럽투어에서도 잘하고파”



문경준이 30일 경기도 여주 블랙스톤GC에서 KB금융 리브챔피언십 3라운드 1번홀에서 세컨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 (사진=KPGA제공)

문경준(39·NH농협은행)이 한국프로골프투어(KPGA)에서 6년만의 감격 우승을 차지했다. 무려 69개 대회 출전만에 이뤄낸 값진 트로피다.

문경준은 30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블랙스톤GC에서 열린 KPGA투어 KB금융 리브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3타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라운드 결과 선두 서형석(24·신한금융그룹)에 이어 한 타 차 공동 2위로 출발한 문경준은 이날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기록하며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5차례나 톱 10에 진입했으나 유독 우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의 주인공이 된 문경준은 지난 2015년 GS칼텍스매경오픈에서 우승 한 뒤 6년만인 69개 대회만에 톱 10을 거뒀다.

문경준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매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얻었다”며 “코로나 백신도 맞고 준비를 잘 해서 유럽투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2007년 KPGA에 데뷔한 문경준은

2014년 KPGA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투어와 KPGA투어를 병행하기도 했다.

우승의 문을 두드려 온 문경준은 지난 2019년 7차례나 톱 10에 올라 무관하면서도 꾸준한 성적을 인정받아 ‘KPGA 올해의 선수상’에 해당하는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제네시스 대상 수상 자격으로 유럽투어 시드를 획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중단으로 올해까지 시드를 유지해 유럽투어에도 출전했다.

문경준은 지난 3월 케냐 사바나 클럽에서 열린 제네시스 대상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년간 5개 대회에 출전한 문경준은 3차례 컷 탈락의 아픔을 겪는 등 유럽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함정우(27·하나금융그룹)는 마지막 날 3타를 줄여 최종 합계 7언더파로 단독 2위에 올랐다.

첫날과 둘째날 단독 선수를 달리며 우승을 노렸던 서형석(24·신한금융그룹)은 이날 마지막 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최종합계 6언더파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10대 돌풍’ 김주형(19·CJ대한통운)은 최종 합계 5언더파 211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토트넘 3900억원 자금 확보...손흥민 재계약에 쓸까

풋볼런던 “손흥민과 재계약 맺고 새 감독 데려올 것”

거액의 투자 자금을 확보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29) 등 주축 선수들과의 재계약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29일(현지시간) “토트넘이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2억5000만 파운드(약 3951억원)의 자금을 조달받았다”며 재정 압박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0~2021시즌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한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이 자금이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트넘은 미국 은행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긴급 자금을 확보했다

데, 유럽 빅 클럽 대부분이 금융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단기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2015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2023년 6월 계약이 만료된다.

애초 지난해 겨울부터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구단 재정 악화로 계약이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이번 시즌 빅4 진입에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출전권 획득이 무산되면서 다음 시즌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주전 공격수 해리 케인이 타 구단 이적을 선언한 가운데 손흥민 등 주요 선수들의 잔류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자금 확보로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과의 재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 22골 17도움을 올리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토트넘은 올해를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고, 새 감독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6시즌을 뛰면서 정규리그 197경기에 출전해 70골 43도움을 올리고 있다. 컵 대회 등을 모두 포함하면 280경기 107골 64도움이다.

김태균 마지막 소감 “꿈이자 동경 한화에서 마침표 영광”

정민철 단장 “김태균과 함께 된 건 나에게도 영광”

김태균 “한화 팬들 덕분에 더 나은 김태균 됐다”



김태균이 한화 이글스의 영원한 52번으로 남는다. 사진은 29일 SSG 랜더스와 경기 후 은퇴식 겸 영구결번식에서 은퇴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한화 이글스의 영원한 52번, 김태균(39)이 뜨거운 안녕을 고했다.

29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끝난 뒤, 김태균의 은퇴식 겸 영구결번식이 시작됐다.

이날 은퇴 경기 선수를 위한 특별 엔트리 제도로 1군에 등록,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하며 통산 2015번째 경기를 마무리한 그를 위한 자리였다.

신인 때 입었던 올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지켜봤던 그는 감동한 정장 차림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 전 “입단 때 교복을 입고 와서 사인을 했다. 그때처럼 교복 스타일의 정장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던 대로였다.

처음과 같은 마무리, 그러나 그 사

이 김태균의 존재는 놀랄 만큼 커졌다.

2001년 한화에서 프로에 뛰어들던 김태균은 KBO리그 대표 우타자가 됐다. 지난해 은퇴 전까지 안타 2209개로 우타자 부문 1위, 역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루타 역시 399개로 우타자 1위, 역대 5위다. 최다루타 역시 3557루타로 우타자 1위, 역대 4위에 해당한다.

2016년 8월7일 NC 다이노스전부터 2017년 6월3일 SK 와이번스전까지 86경기 연속 출루로 한·미·일 프로야구 최다 경기 연속 출루의 금자탑을 쌓기도 했다.

구단은 현역 시절 김태균이 달고 뒀던 등번호 52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했다.

팀 선배이자 코치였고, 구단의 또

다른 영구결번 주인공이기도 한 정민철 단장은 헌정사를 통해 “긴 시간을 함께 해주고 이겨내줘서 동료로서, 선배로서,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전했다.

정 단장은 “태균아, 너와 함께 뛰고 너의 경기를 보는 건 나에게 큰 영광이었고 특권이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축하한다. 이글스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팍을 칠러”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정 단장이 마이크를 김태균에게 넘기자, 경기장은 관중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관중들은 박수 소리에 맞춰 “탱큐 TK”라는 구호를 연달아 외치며 팀 레전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만감이 교차한 모습의 김태균은 “한화 이글스의 김태균”이라고 소개할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니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방방이를 처음 잡았던 30년 전 한화는 나의 첫 꿈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런 팀에 지명 받아 선수 생활을 했고, 많은 관중들, 팬들 앞에서 내 야구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돼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또 다시 울컥한 김태균은 “긴 시간 동안 우리 한화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더 빛났다. 한화 팬들은 나에게 큰 존재였다. 우리 팬들은 나를 언제나 자랑스러워했고, 아껴줬다. 팬 여러분이 있었기에 더 나은 김태균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팬들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태균은 한화를 넘어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매김했지만, 끝내 우승에 대한 한은 풀지 못하고 유니폼을 벗었다.

첼시, 맨시티 1-0 꺾고 9년 만에 유럽 챔스 우승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 간의 맞대결로 펼쳐진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첼시가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9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첼시는 30일(한국시간) 포르투갈 포르투의 드라강 스타디움에서 치

러진 대회 결승에서 카이 하베르츠의 결승골로 맨시티를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첼시는 2011~2012시즌 이후 9년 만에 우승컵인 ‘박이어’를 들어 올렸다. 구단 통산 2번째다.

또 지난 시즌 파리생제르맹(PSG)

에서 준우승에 그쳤던 토마스 투헬 감독은 1년 만에 첼시에서 다시 결승에 올라 우승컵에 입맞춤했다.

이번 결승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최지가 포르투갈 포르투로 변경됐다.

유럽 챔피언에 된 첼시는 1900만 유로(약 258억원)의 우승 상금을 챙겼다. 누적 총상금만 약 8000만 유로(약 1100억원)다.

반면 맨시티는 구단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앞서 EPL과 리그컵(카라바오컵) 우승으로 더블(2관왕)에 성공했던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트레블(3관왕)을 노렸으나, 첼시에 발목을 잡혔다.

올 시즌 유독 첼시에 약한 맨시티다. 앞서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도 첼시에 0-1로 패한 바 있다.